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

곽 길 여(장천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공 인 숙(순천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봄으로써,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순천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 학년 재학생 20명으로, 각 10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되었다. 책읽어주기 활동은 10주간 지속되었으며, 총 30권의 책을 읽기 전 마음열기, 책읽어주기, 읽은 후 이야기 나누기 및 표현하기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아동의 역량지각척도(이주리, 1994)와 초등학생용 읽기태도검사(이성애, 2003)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아동의 역량지각척도는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신체적 역량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6문항,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의 독서태도 검사는 여가 관련 독서태도 10문항과 학업 관련 독서 태도를 측정하는 6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아동의 언어적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림 자료를 병행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증, 그리고 일변량 공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역량과 신체적 역량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사회적 역량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이 아동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겠다. 즉, 아동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대리 경험하고 교사와 또래 아동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 경험을 승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는 아동의 여가적 독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동의 학업적 독서태도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는 빈곤 아동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 책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아동의 여가적 독서 태도를 높이는 것은 추후 빈곤 아동의 생활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의 책읽어주기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자아존중감과 여가적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하는 것은 빈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함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